

'국기원을 전주로 이전하라'

시의회, 건의안 채택... "성지화 사업은 태권도 세계화에 배치... 문화콘텐츠화 위해 이전해야"

전주시의회는 무주태권도원의 위상 제고 및 성지화의 교육목적에 위해 국기원이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계획을 중단하고 전주에 국기원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당초 추진했던 국기원의 무주태권도원 이전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전주 이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택한 건의안에서 시의회는 무주태권도원이 조성된 후 태권도 집약화를

통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태권도문화콘텐츠가 강조되고 있으나 국기원은 무주의 기반여건을 거론하며 무주 이전 대신에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기원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기원의 리모델링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태권도인들에게 밀실사업으로 비추지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무주태권도원을 반쪽으로 나누고 결국에는 태권도인들마저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기원의 전주 이전이 무주태권도원

이전에 가장 부정적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한옥마을 관광콘텐츠 조성 등으로 연간 1천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주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실성이 없이 추진되는 국기원의 태권도 성지화 사업(리모델링)은 일부 태권도인들의 생각만을 반영한 것으로 무주태권도원의 설립 취지인 태권도 집약화를 통한 태권도 세계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을 대표 제안한 강동화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태권도 문화콘텐츠화를 추진하고 있고 무주를 중심으로 서울 등 일부 도시를 연결하는 태권도시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사업도 추진될 예정인 만큼 우리가 먼저 국기원을 전주로 이전해 전북 경제의 도약과 전주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대법원을 비롯해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정당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설공단, 설 연휴 성묘객 특별운영 대책 추진

전주시설공단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효자공원묘지를 찾는 성묘객들에게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특별운영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16일 설 당일에는 성묘객이 몰려 장례처량 진입이 어려운 승화원(화장장)을 휴장한다.

설 연휴기간 동안은 효자공원 진입도로인 유연로와 공주팔리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완안경찰서와 협조 성묘객 맞이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성묘 안내와 제례용품 및 비상약품 비치, 차량통제, 야외주차장 확보 등 성묘객의 편의를 제공, 안전한 성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점검 등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 공설화장장(전주승화원) 063-239-26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설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구입 전주시가 1일 시청 로비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소를 설치하고 판매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채규남 기자

"도심권 안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 시급"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 5분 발언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지난 1일 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주대대 이전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 북부권 개발의 중심에 있는 천마지구 전주대대의 이전을 촉구했다.

전주대대는 전주시 북부권의 가장 외곽지역에 위치했으나 이후 송천동 주변의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35사단 지리가 예코시티로 개발되면서 전주대대 주변에는 수많은 고층아파트가 신축, 앞으로는 더 많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주거지역과 인접한 군부대 훈련장은 시민의 안정과 관련 불안한 요소가 되고 있다. 사격 및 예비군 훈련 시 인근 아파트 지역에 소음에 대한 각종 민원과 안전상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실례로 2010년 2월에 전주대대의 사격 훈련 중 도미탄이 인접 동아 아파트 가장집 유리창을 뚫고 들어간 사건이 발생, 다행히 집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많은 전주대대 인접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2012년 5월 전주대대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 2016년 3월 전주시

는 국방부에 완주군 봉동읍 106연대 지역으로 전주대대를 이전하기 위해 합의각서 안을 제출하여 2017년 2월 까지 5여 년간 완주군 의회 및 완주군과 수십 차례 협의 요청했으나 결국 완주군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전주대대 이전 지연에 따른 송천동 주민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들의 더 큰 불편함과 불안감을 초래, 전주시 발전계획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전사업의 긴박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8여 년 동안 표류된 전주대대 이전사업이 본궤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 밝혔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설공단 노인취업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전주시설공단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력에 다짐했다.

두 기관은 시니어인턴십사업과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한다.

공단은 2017년의 경우 시니어인턴십 사업으로 41명을 채용해 7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에는 노인고용에 대한 부담완화와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노인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창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채규남 기자

'부실채권 소각' 종교단체 후원 줄이어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기부금 500만원 기탁

금융취약계층을 돕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치는 전주시에 빚으로 고통 받는 이웃을 돕기 위한 종교단체의 도움이 손길이 줄어 있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일 시청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오성택 회장을 비롯해 전주시기독교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실채권 소각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주시기독교연합회는 시민들의 악성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기부금 5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전주시역 금융취약계층을 빚더미에서 구해주기 위해 앞장서서 연금회는 2016년 12월에도 부실채권 소각을 위한 총 1000만원의 기부금을 기탁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향후 장기 부실채권을 저가로 매입해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악성부채를 해소

하기 위한 부실채권 소각에 사용될 예정이다.

연합회 외에도 천주교 전주교구청과 금산사, 전북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원불교 전북교구 등 전주시역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은 현재까지 총 6500만원을 후원하면서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 왔다.

이들 종교단체 후원금은 부실채권 매입에 활용돼 현재까지 총 14억2800여만원 상당의 부실채권이 소각돼 전주시민 86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시는 부실채권 소각 외에도 △서민 채무자들에게 파산신청, 개인회생 등 절차를 상담·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금융복지 시민강좌 무료운영 등 전주형 서민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다. /채규남 기자

'재량사업비 비리' 전주시의원 2명 벌금·집행유예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업무로 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주시의원 2명에 대해 각각 벌금·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시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 및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함께 기소된 송정훈 시의원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및 추징금 3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예산 결의 및 집행 권한을 남용했다"며 "고 피고인의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10월 시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 등 설치사업에 편성한 대가로 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뇌물 500만원 가운데 5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선 뇌물 공여자의 간접 증언 밖에 없어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8~10월 같은 사업에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주고 350만원 수수한 혐의다. /이삼민 기자

10억원 규모 전국구 보험사기단 24명 입건... 주범 3명 추적 중

10억원 규모의 전국구 보험사기단 24명이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전주지역경찰서는 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정모(30)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주한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에 있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8월 15일 오후 2시 14분께 외상으로 구입한 외제차를 이용해 후배 3명을 태우고 불발으로 류남원 고가의 활을 장차한 후 진로변경 차량을 보고 일부로 사고를 내고 수리비와 합의금 등 15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서울과 전주 등의 대도시를 오가며 156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9억 8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리비와 합의금 액수를 높이기 위해 선후배나 친구, 동거녀, 가족 등 18명을 끌어들여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만 골라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수법에 비해 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조사를 하는 한편, 공범들을 검거하기 위한 추적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삼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